

인질 17명 추가 석방...하마스, 휴전 연장 추진

이스라엘인 14명·외국인 3명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 석방 바이든 "미국인 4세 여아 풀려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3일 차인 26일(현지시간) 총 17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하고, 휴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도 자국 교도소에 갇혀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풀어줬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저녁 성명을 통해 적신원사를 통해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등 총 17명의 인질의 신병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 신병트는 인질 13명의 신병을 이집트 쪽과 국경 검문소가 아닌 가자지구 중부의 분리 장벽에서 적신원사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들 중 12명을 인근 공군 기지로 데려가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다른 한명의 풀려난 인질은 헬기 편으로 곧장 병원으로 후송됐다.

태국인 3명과 러시아-이스라엘 이중국적자 1명 등 나머지 4명은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이스라엘로 인계됐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석방 대상자 17명 가운데 14명이 이스라엘인이며 외국인은 3명이라고 밝혔다.

반면 하마스 측은 13명의 이스라엘인 인질과 태국인 3명, 러시아인 1명을 적신원사에 인계했다고 밝혀, 이스라엘군 측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하마스가 가장 먼저 석방한다고 별도로 발표했던 러시아 국적의 이스라엘 이중국적자를 이스라엘인으로 간주하거나 외국인으로 간주한 때 따른 차이로 보인다.

이스라엘 교정 당국은 교도소에 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북부를 떠나 피란을 떠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26일(현지시간) 가자시티 자이툰 지역의 도로를 따라 걷고 있다.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일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휴전이 끝나면 가자지구에서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석방된 인질 가운데 자국민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풀려난 미국 국적자는 예비계일 이단(4세)으로 휴전 개시 후 미국 국적자 석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네 살배기 미국인 예비계일이 오늘 가자에서 풀려난 13명의 인질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해 임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며 "이번 휴전을 내일 이후까지 이어가 더 많은 인질이 풀려나고 인도주의적 도움이 가자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확인했다.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4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후 이를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휴전에 관한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석방되는 이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간 휴전과 함께 이스라엘인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석방하기로 했다.

하마스는 휴전 첫날인 24일 이스라엘 인질 13명과 외국인 11명을 풀어줬고, 이틀째인 25일엔 이스라엘인 13명과 외국인 4명을 석방했다. 이스라엘도 지난 이틀간 휴전 합의대로 자국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78명을 풀어줬다. /연합뉴스

올림픽 앞두고 주택난 심화 프랑스 공유숙박 규제 움직임

프랑스가 주택난 심화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규제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 7월 파리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공유 숙박 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규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오는 28일 공유 숙박 규제안을 담은 초당적 법안이 하원 심사를 받는다.

정부 여당인 르네상스당과 야당인 사회당이 주도한 이 법안의 핵심은 공유 숙박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선 에어비앤비처럼 가구가 딸린 관광용 숙박 시설은 71%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가구가 비치된 일반 임대 숙소의 공제율이 50%, 가구가 딸리지 않은 일반 임대 숙소의 공제율이 30%인 것에 비하면 상당한 특혜다.

법안은 이에 따라 이들 공제율을 40%로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집주인이 단열이 잘 안되는 열악한 숙소를 관광용 숙박시설로 바꾸기 위해 개조하는 걸 막기 위해 에너지 성능 진단을 받도록 했다. 저등급으로 평가된 숙소는 부동산 용도 변경 허가를 못 받는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1년 안에는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지자체장들에게 지역에 맞는 규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홍콩 두번째 '오징어 올림픽' 여전한 '오징어 게임' 인기

홍콩에서 26일 열린 두 번째 '오징어 올림픽'에 100명이 참가해 여러 한국 놀이를 체험했다.

27일 주홍콩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홍콩 완차이 사우스 스타디움에서는 지난 3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두 번째 '코리아 게임: 오징어 올림픽'이 열렸다.

한국문화원이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기반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등 10여종의 다양한 한국 놀이로 구성된 체험 행사다.

이번에는 SBS TV 인기 예능 프로그램 '런닝 맨'의 이름표 떼기와 판 뒤집기 종목도 추가됐다.

3월 행사와 마찬가지로 5명으로 구성된 20개 팀 100명이 참가했으며, 그중에는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팀도 있었다.

한국문화원은 총 60개 팀이 신청했고 심사를 통해 참가 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매우 즐거워했다"고 전했다.

세계적으로 히트한 '오징어 게임'은 홍콩에서도 2021년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엡다이애나비 약혼 사진속 블라우스 경매

낙찰가 1억원 훌쩍 넘을 듯

영국 다이애나비가 1981년 약혼 발표 때 사용된 초상 사진에서 입었던 분홍색 블라우스가 경매에 나온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디자이너 데이비드와 엘리자베스 이매뉴얼이 만든 이 옷은 경매사 줄리안 옥션과 미국의 영화 전문 채널 터너 클래식 무비스(TCM)가 다음 달 14~17일 미국 베벌리힐스에서 진행하는 경매 이벤트에 출품된다.

낙찰가는 8만~10만 달러(약 1억~1억 3000만원)로 예상된다.

다이애나비가 이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은 1981년 2월 찰스 당시 왕세자와의 약혼 공식 발표와 함께 보그 잡지에 실렸다. 이 옷은 앞서 2019년 켄싱턴궁에서 다이애나비의 패션

을 주제로 열린 전시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할리우드의 전설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매 행사에는 다이애나비가 입었던 이브닝 드레스도 함께 경매에 오른다.

다이애나비가 1985년 4월 이탈리아 피렌체를 방문할 때 입었던 이 드레스의 가격은 낙찰가가 10만~20만 달러(약 1억 3000만~2억 6000만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배우 오드리 헵번이 1963년 코미디 영화 '샤롯데'에서 입었던 자방시 드레스를 비롯해 글로리아 스완슨,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등 할리우드 고전 스타들의 옷이 경매에 나온다. 미국의 인기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주인공 캐리 브래드쇼(사라 제시카 파커 분)가 글을 쓸 때 사용했던 노트북인 애플의 '파워북 G3'도 예상가 800~1200달러(약 104만~156만원)에 출품된다. /연합뉴스

美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사상 최대

98억달러... 지난해보다 7.5% 증가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올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 등이 보도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블랙프라이데이인 지난 24일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작년보다 7.5% 증가한 98억 달러(약 12조 8000억원)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당일인 지난 23일 온라인 매출도 56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5.5% 늘어났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 소비자들은 주로 전자제품과 스마트워치, TV, 오디오장비 등을 주로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비 측은 "지난 1년간 온라인 가격이 하락하

고 할인소비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으며 할인도 강력해져 가격에 가장 민감한 소비자들도 끌어당겼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분석업체인 '세일즈포스' 집계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작년보다 9% 늘어난 164억달러에 달했다.

추수감사절 매출은 75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블랙 프라이데이에 는 신발과 스포츠용품, 건강, 미용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고 세일즈포스는 분석했다.

캐나다의 전자상거래 업체 소피파이도 의류와 보석류 등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이 작년보다 22%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11월 4번째 목요일)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연중 가장 큰 세일 시즌이자 쇼핑 대목이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